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40 days for life)

(www.40daysforlife.com 미국 홈페이지 소개 번역)

개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기도와 단식,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낙태 관련 기관들 앞에서 평화적으로 온종일 드리는 기도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낙태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40일 간의 캠페인입니다.

기도와 단식

그리스도는 어떤 악령들은 오직 기도와 단식으로만 쫓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둘(기도와 단식)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두게 해줍니다. 단식은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돕는 희생입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동안 매일 개인, 교회, 가족, 단체들이 구체적인 지향을 위한 기도 안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또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기간 내내 단식하도록 초대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단식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민족,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Constant Vigil)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서 가시적이고 공식적인 핵심요소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계획연맹센터나 낙태 관련 시설 외부에서 40일 동안 쉬지 않고 24시간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적이고 교훈적인 현존이 됩니다. 이 하루 24시간 현존의 시간동안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낙태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지역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낙태 시설센터나 그 시설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회로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이러한 낙태 시설이나 가족계획연맹이 없더라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아마도 시청, 법원, 또는 아주 잘 보이는 교차로 근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 (Community Outreach)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는 동안, 메시지는 여러분의 지역 구석구석에 전달됩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알리는 신중하게 선정된 보도 기사, 토크쇼, 그리고 신문 사설을 통해 행해집니다. 교회의 참여는 그 지역의 사목자들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교단의 신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하는 청원과 교육 활동은 여러분의 마을 혹은 도시에 있는 모든 가구에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손목 밴드를 착용하거나 마당에 표지판을 세우거나 범퍼 스티커를 차량에 붙임으로써 가시적으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학교 캠퍼스가 있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관한 캠퍼스 홍보활동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단지 배포, 공개적인 증언, 진정서 제출 운동, 진열대 설치, 이밖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07년 처음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시작된 이래, 63개국, 1천개가 넘는 도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나

낙태의 위기는 엄청납니다. 전염병 규모의 재난인 낙태는 매년 대략 4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텍사스 주의 브라이언/칼리지 스테이션에 살고 있던 네 명의 사람에게, 그 답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기였습니다.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

1998년, 가족계획연맹은 미국 텍사스 브라이언/칼리지 스테이션에 낙태 센터를 열었습니다. 신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센터는 건립되었고 가족계획연맹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브라조스 밸리 지역에서 낙태를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는 더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조스 밸리 생명 연합의 네 명의 멤버들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낙태를 종식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분께 여쭙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그들은 오래된 나무 탁자 주위에 모여 한 시간 동안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기도 시간 동안 그들은 40일이라는 시간형태에 끌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구원의 역사 내내 당신의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사용하셨던 기간입니다. 하느님께서 40일 안에 브라이언/칼리지 스테이션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수 있을까요?

24시간 내내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이 네 사람은 낙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기도와 단식, 지역봉사 활동, 그리고 끊임없는 평화적인 기도를 포함하는 40일 간의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운동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40일, 960시간 내내 끊임없는 기도 운동으로 채워갈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모든 기대를 뛰어 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6주도 채 되지 않아 1천명 이상의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960시간 기도 전체를 확실하게 맡아주었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의 직접 방문하려는 노력은 25,000 이상의 가구를 방문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주, 그리고 전국 단위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낙태율은 28퍼센트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그 다음 해에는 미국 전역에 걸쳐 텍사스 주 휴스턴, 텍사스 주 댈러스,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워싱턴 주 키트샵 카운티,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공동체들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리더들은 33개 주의 89개 도시에 걸쳐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연결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캠페인은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열렸습니다. 그러자 전세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6개의 모든 대륙에 걸쳐 수십 개 국가의 수백 개 도시에서, 현재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명운동가들은 휴스턴, 맨해튼, 인디애나폴리스, 토론토, 런던, 시드니, 멕시코 시티, 케이프 타운, 보고타, 모스크바, 홍콩과 같은 장소에 있고, 기도하는 연대 속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침

2007년 이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참가자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17,000명 이상의 생명을 낙태로부터 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시민자유연맹 대변인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선택(낙태찬성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묘사하게 만든 영향입니다.

그런데 생명만이 구해진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도 또한 구원받아 하느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칼리지 스테이션에서 개최된 제6회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계획연맹의 ‘올해의 최고 직원’이었던 애비 존슨(Abby Johnson)은 낙태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고, 그녀는 직장을 떠나면서 격려를 받기 위하여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팀으로 온 것입니다.

애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텍사스 셔먼에서 시작되었고, 가족계획연맹에서 일하는 라모나 트레비노(Ramona Trevino)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이끌기도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낙태관련 노동자들이 이 두 명의 텍사스 사람들을 포함하여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를 통해 회심을 경험하고 직장을 떠났습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전세계적으로 프로라이프 지지의 변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캠페인이 열린 100개 이상의 낙태 센터(및 수많은 위탁 센터)는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브라이언/칼리지 스테이션 가족계획연맹도 2013년에 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건물은 이제 속량되어 현재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국제본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모든 낙태 센터가 영원히 문을 닫을 때까지 이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40일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꾸준히 사용하신 기간입니다.

*** 참고 : 한국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운동**

- 9.22~10.31.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첫 40일 기도 시행.
- 2022. 9.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2차 시행.
- 2023. 9.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3차 시행.
- 2024. 9.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4차 시행.

- 봉사자들은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총 6번) 시간을 미리 정해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바뀌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요일 담당자(Day Captain)에게 요청해서 참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낙태클리닉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를 선택하여 기도함. 태아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림으로써 낙태를 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의식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